살펴보겠습니다. 유인물 보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작은 1번.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고통

사사기 6장 3절로 4절

3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4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3 Pues sucedía que cuando Israel había sembrado, subían los madianitas y amalecitas y los hijos del oriente contra ellos; subían y los atacaban.
4 Y acampando contra ellos destruían los frutos de la tierra, hasta llegar a Gaza; y no dejaban qué comer en Israel, ni ovejas, ni bueyes, ni asnos.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0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 사슬에 매임은
11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0 Algunos moraban en tinieblas y sombra de muerte, Aprisionados en aflicción y en hierros,
11 Por cuanto fueron rebeldes a las palabras de Jehová, Y aborrecieron el consejo del Altísimo.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할 때에는 그 주변 나라를 들어서 고통을 가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2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6 De este modo empobrecía Israel en gran manera por causa de Madián; y los hijos de Israel clamaron a Jehová.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또한 그 부르짖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12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2 Entonces me invocaréis, y vendréis y oraréis a mí, y yo os oiré;
13 y me buscaréis y me hallaréis, porque me buscaréis de todo vuestro corazón.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

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3 Clama a mí, y yo te responderé, y te enseñaré cosas grandes y ocultas que tú no conoces.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르짖으고 내게 와서 지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지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대로 그 사사기 쭉 보면 부르짖었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선택해서 보내줬어요.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괴롭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서 일어났어요.

큰 2번에 보면 부름받은 기드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1번 연약한 기드온 사사기 6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15 Entonces le respondió: Ah, señor mío, ¿con qué salvaré yo a Israel? He aquí que mi familia es pobre en Manasés, y yo el menor en la casa de mi padre.

기드온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있고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 겸손한 자를 부르시고 그 연약하고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그 사울왕도 다윗도 많은 사람들도 부름받기 전에는 참으로 세상에 약한 자였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 약하고 겸손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그 강하게 만들고 강한 그 주변 나라들은 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동일합니다.

모세가 젊어서 그 40세라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에 그 모세를 그 젊은 나이에 쓰셨다면 모세는 교만했을 거에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높아질 겁니다.

그런 그 모세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고 살인자로 만들어서 그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양치기로 40년 동안 살게 만들고 그 정말 나이먹고 그 힘이 없는 그 늙은 모세를 부르자나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깁니다.

그 때 모세가 말하기를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여기 잡으시고 출애굽기 3장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1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1 Entonces Moisés respondió a Dios: ¿Quién soy yo para que vaya a Faraón, y saque de Egipto a los hijos de Israel?
12 Y él respondió: Ve, porque yo estaré contigo; y esto te será por señal de que yo te he enviado: cuando hayas sacado de Egipto al pueblo, serviréis a Dios sobre este monte.

이 모세가 한 말은 진심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Ven, por tanto, ahora, y te enviaré a Faraón, para que saques de Egipto a mi pueblo, los hijos de Israel.
Entonces Moisés respondió a Dios: ¿Quién soy yo para que vaya a Faraón, y saque de Egipto a los hijos de Israel?

그 자신을 바라봤을 때 모세는 도저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 지혜나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가지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 불러서 쓰기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무엘상 9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21 Saúl respondió y dijo: ¿No soy yo hijo de Benjamín, de la más pequeña de las tribus de Israel? Y mi familia ¿no es la más pequeña de todas las familias de la tribu de Benjamín? ¿Por qué, pues, me has dicho cosa semejante?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도 그 가문으로 보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 베냐민 지파가 가장 미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왕 그 사울왕이 될 때 정말 미약하고 가문도 좋지 않은 그런 가문에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을 세워놓은 겁니다.

정말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울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를 때 겸손한 자 깨끗한 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올바로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예레미야 라고 하는 그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연약한 자고 어리다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유인물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Y yo dije: ¡Ah! ¡ah, Señor Jehová! He aquí, no sé hablar, porque soy niño.

그 어린 나이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말하자나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말하든 너는 말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이렇게 약속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자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훼방자요 폭행자요 비방자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10 Por lo cual, por amor a Cristo me gozo en las debilidades, en afrentas, en necesidades, en persecuciones, en angustias; porque cuando soy débil, entonces soy fuerte.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자기의 약할 때 그 약한 자기를 통해서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하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낮아져있는지 약한 자인지 그리고 겸손한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약한 자인지 알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많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작은 2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사사기 6장 12절.

12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2Y el ángel de Jehová se le apareció, y le dijo: Jehová está contigo, varón esforzado y valiente.

사사기 6장 16절.

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16 Jehová le dijo: Ciertamente yo estaré contigo, y derrotarás a los madianitas como a un solo hombre.

전쟁에 지고 이김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뛰어난 군사전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 함께 하지 않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늘 살펴보고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이 함께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을 하겠죠.

주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상관없는 일을 할 때 그 주님의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7 Mas gracias sean dadas a Dios, que nos da la victoria por medio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여호수아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10 Un varón de vosotros perseguirá a mil; porque Jehová vuestro Dios es quien pelea por vosotros, como él os dijo.

잠언 21장 31절에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El caballo se alista para el día de la batalla; Mas Jehová es el que da la victoria.

함께 하냐 함께 하지 않냐 그리고 그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24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24 Y edificó allí Gedeón altar a Jehová, y lo llamó Jehová-salom; el cual permanece hasta hoy en Ofra de los abiezeritas.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단을 쌓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단을 쌓았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그 기드온도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난 그 곳에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 거기서 벧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벧엘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7 Y apareció Jehová a Abram, y le dijo: A tu descendencia daré esta tierra. Y edificó allí un altar a Jehová, quien le había aparecido.
8Luego se pasó de allí a un monte al oriente de Bet-el, y plantó su tienda, teniendo a Bet-el al occidente y Hai al oriente; y edificó allí altar a Jehová, e invocó el nombre de Jehová.

창세기 13장 18절.

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18 Abram, pues, removiendo su tienda, vino y moró en el encinar de Mamre, que está en Hebrón, y edificó allí altar a Jehová.

창세기 26장 25절.

25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25 Y edificó allí un altar, e invocó el nombre de Jehová, y plantó allí su tienda; y abrieron allí los siervos de Isaac un pozo.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헌신하겠다 하는 그 표로 단을 쌓은 겁니다.

단 이라는 곳은 어디냐 우리에게서 단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에서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쉼을 얻냐 바로 십자가 밑에서 쉼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고 그러므로 더욱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라고 이야기 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에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도 단을 쌓다가 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와서 그 쌓은 단에서 아마 한없이 눈물을 흘렸을 거에요.

그 주신 것을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그 어려움 기근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피해서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한없이 뉘우치고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약속의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소홀할 때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어디서 내 마음이 회복되냐 힘을 얻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단. 십자가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에요.

그래서 야곱도 이삭도 그 단을 쌓고 거기서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을 바라본다는 것.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기드온의 순종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25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칠년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26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찌니라

25 Aconteció que la misma noche le dijo Jehová: Toma un toro del hato de tu padre, el segundo toro de siete años, y derriba el altar de Baal que tu padre tiene, y corta también la imagen de Asera que está junto a él;
26 y edifica altar a Jehová tu Dios en la cumbre de este peñasco en lugar conveniente; y tomando el segundo toro, sacrifícalo en holocausto con la madera de la imagen de Asera que habrás cortado.

말씀~ 27절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27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27 Entonces Gedeón tomó diez hombres de sus siervos, e hizo como Jehová le dijo. Mas temiendo hacerlo de día, por la familia de su padre y por los hombres de la ciudad, lo hizo de noche.

입장을 좀 바꿔놓고 한 번 생각해보면 이 기드온의 용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상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그 우상의 단을 헐어버리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헐은 자리에 규례대로 하나님의 단을 쌓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때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거에요. 그리고 정말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해요.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상의 단을 헐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주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대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깐 그 일이 굉장히 큰 일 같이 생각했고 엄청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진행되는 것 보니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한 겁니다.

그 기드온을 잡아서 죽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 편이 됐습니까? 누구 편이 됐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누구 편으로 돌아서버렸죠? 기드온 편이 되어버렸어요. 기드온 편이.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8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훼파되었으며 단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29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위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30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찌니 이는 바알의 단을 훼파하고 단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28 Por la mañana, cuando los de la ciudad se levantaron, he aquí que el altar de Baal estaba derribado, y cortada la imagen de Asera que estaba junto a él, y el segundo toro había sido ofrecido en holocausto sobre el altar edificado.
29 Y se dijeron unos a otros: ¿Quién ha hecho esto? Y buscando e inquiriendo, les dijeron: Gedeón hijo de Joás lo ha hecho. Entonces los hombres de la ciudad dijeron a Joás:
30 Saca a tu hijo para que muera, porque ha derribado el altar de Baal y ha cortado la imagen de Asera que estaba junto a él.

31절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31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

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찐대 그 단을 훼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31 Y Joás respondió a todos los que estaban junto a él: ¿Contenderéis vosotros por Baal? ¿Defenderéis su causa? Cualquiera que contienda por él, que muera esta mañana. Si es un dios, contienda por sí mismo con el que derribó su altar.

아버지가 그 기드온의 편에 서서 지금 그 죽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바알의 편에 서서 쟁론하느냐 그 바알이 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내비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5번째 기드온에게 여호아의 신이 강림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34절.

34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좇고

34 Entonces el Espíritu de Jehová vino sobre Gedeón, y cuando éste tocó el cuerno, los abiezeritas se reunieron con él.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그 삼손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짓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각각의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단지 따라갈 뿐입니다.

따라서 행할 뿐 나도 내 속에 있는 그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9 para lo cual también trabajo, luchando según la potencia de él, la cual actúa poderosamente en mí.

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고 있고 그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번 기드온과 300용사. 작은 1번 너를 좇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2 Y Jehová dijo a Gedeón: El pueblo que está contigo es mucho para que yo entregue a los madianitas en su mano, no sea que se alabe Israel contra mí, diciendo: Mi mano me ha salvado.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암과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더니 삼만이천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 그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수효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고 적으면 어떤 때는 이렇게 기분이 업도 되고 다운도 되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것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곳에 나도 함께 한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헌신한 두 세 사람이 있으면 그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삼만이천명은 많으니깐 돌려보내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돌아갔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유인물 이사야서 중간에 보면 40장 29절에서 31절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29 Él da esfuerzo al cansado, y multiplica las fuerzas al que no tiene ningunas.
30 Los muchachos se fatigan y se cansan, los jóvenes flaquean y caen;
31 pero los que esperan a Jehová tendrán nuevas fuerzas; levantarán alas como las águilas; correrán, y no se cansarán; caminarán, y no se

fatigarán.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Él da esfuerzo al cansado, y multiplica las fuerzas al que no tiene ningunas.
Los muchachos se fatigan y se cansan, los jóvenes flaquean y caen;
pero los que esperan a Jehová tendrán nuevas fuerzas;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 힘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힘도 주고 능력도 주시는구나 주님의 어떤 역사하심 능력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작은 2번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3절

3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명이요 남은 자가 일만명이었더라

3 Ahora, pues, haz pregonar en oídos del pueblo, diciendo: Quien tema y se estremezca, madrugue y devuélvase desde el monte de Galaad. Y se devolvieron de los del pueblo veintidós mil, y quedaron diez mil.

이만이천명이 돌아가라 하니깐 두려워서 돌아가라 하니깐 이만이천명이 돌아갔고 나머지 일만명이 남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마음이 합당치 못한 거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보면 아무 생각없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 힘드니깐 이건 좀 힘들겠다 어렵겠다 안되겠다 그냥 스윽 사라지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그런 분들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수가 많기를 원치 않아요. 온전히 드려진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6장 24절.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4 Entonces Jesús dijo a sus discípulos: Si alguno quiere venir en pos de mí, niéguese a sí mismo, y tome su cruz, y sígame.

25절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5 Porque todo el que quiera salvar su vida, la perderá; y todo el que pierda su vida por causa de mí, la hallará.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niéguese a sí mismo, y tome su cruz, y sígame.
Porque todo el que quiera salvar su vida, la perderá; y todo el que pierda su vida por causa de mí, la hallará.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싸움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룩한 주님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Porque no tenemos lucha contra sangre y carne, sino contra principados, contra potestades, contra los gobernadores de las tinieblas de este siglo, contra huestes espirituales de maldad en las regiones celestes.

우리의 싸움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주의 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용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합당치 않은 거에요.

그런 사람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만명을 또 그 불러가지고 테스트를 한 번 해봐요.

그런데 삼백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격자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삼백명만 이렇게 부름을 받고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3번에 작은 3번에 기드온과 삼백용사.

사사기 7장 6절에

6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6 Y fue el número de los que lamieron llevando el agua con la mano a su boca, trescientos hombres; y todo el resto del pueblo se dobló sobre sus rodillas para beber las agua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만명을 테스트 하는데 만명에서 삼백명을 추려서 지금 보니깐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삼백명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지금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를 물을 마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이? 전쟁중이죠. 즉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그 마주대하고 있는 거에요. 전쟁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깐 항상 깨어 있는 사람.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경계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요? 전쟁 중이자나요. 누구와 전쟁 중입니까? 마귀와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아무 생각없이 살아가면 아무 생각없이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계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육식은 것. 육신의 목마를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 그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자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면 우리보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

너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 마귀는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자나요. 그러면 그 여지없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런 것 많이 경험할 겁니다. 지금 자매하고 어떤 형제하고 집에 다툼이 생겨요.

그 시작을 보면 아주 큰 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큰 일이 아니고 작은 것 사소한 것에부터 다툼이 일어나자나요. 그렇죠?

거기 누가 개입되어 있냐 거기 마귀가 틈을 탄 거에요. 그 싸움 가운데는 항상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전쟁 중이고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장 11절.

11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 Vestíos de toda la armadura de Dios, para que podáis estar firmes contra las asechanzas del diablo.

14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4 Estad, pues, firmes, ceñidos vuestros lomos con la verdad, y vestidos con la coraza de justicia,
15 y calzados los pies con el apresto del evangelio de la paz.
16 Sobre todo, tomad el escudo de la fe, con que podáis apagar todos los dardos de fuego del maligno.
17 Y tomad el yelmo de la salvación, y la espada del Espíritu, que es la palabra de Dios;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을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틈을 타지 못해요. 항상 방심하고 한가로이 있을 때 그 때 마귀는 틈을 타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라고 명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마귀가 더욱더 그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게 한다는 거에요.

유인물 작은 3번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대로 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7절. 유인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대로 하되 내가 그 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7 Y les dijo: Miradme a mí, y haced como hago yo; he aquí que cuando yo llegue al extremo del campamento, haréis vosotros como hago yo.

기드온이 삼백용사에게 이를기를 내가 한대로 너희들은 따라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 Sed imitadores de mí,#1 Co. 4.16; así como yo de Cristo.

아이들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사니깐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마음에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거에요.

그 다음에 작은 4번 나팔을 불려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스니라

사사기 7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일백명이 이경 초에 진 가에 이른즉 번병의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19 Llegaron, pues, Gedeón y los cien hombres que llevaba consigo, al extremo del campamento, al principio de la guardia de la medianoche, cuando acababan de renovar los centinelas; y tocaron las trompetas, y quebraron los cántaros que llevaban en sus manos.

그 횃불과 그 횃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저기 있는 그 산을 둘러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항아리를 깨고 함성을 질렀어요.

나팔과 함께 그 때 적이 다 그 서로 싸우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적을 다 무찔렀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한 자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19 Hijitos míos, por quienes vuelvo a sufrir dolores de parto, hasta que Cristo sea formado en vosotros,

그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에 빠졌을 때 그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 여자가 그 어머니가 출산할 때 받는 고통과 맏먹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 잘못된 이단에 빠진 그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과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 항아리를 깨지는 것은 우리의 육신 주님 앞에 희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 Os aseguro, hermanos, por la gloria que de vosotros tengo en nuestro Señor Jesucristo, que cada día muero.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죽어갈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느니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자기가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거에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과 삼백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았어요.

연약한자 겸손한 자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능력을 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주시며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 마음 속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일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교사의 직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좋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지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또한 걷게 하신 주님 내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주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